

2018수능 대비

국어영역

한 문제도

안 틀리는 법

정답은 지음

“수능 국어 100점을 위한
최고의 독학용 교재”

6월, 9월, 수능 3연속 국어 만점자의 수능적 개념과 사고방식



국어영역

한 문제도

안 틀리는 법

국어 영역 한 문제도 안 틀리는 법

지은이 : 정담은 / damonj11@naver.com

디자인 및 편집 : 정담희 / damhee2@naver.com

발행일 : 2017년 3월 5일

개정 : 2017년 3월 5일

*본문에 쓰인 모든 기출 문제의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국어자몽'에서 이 책의 내용 및 국어 과목에 관련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독자분들께서는 메시지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 [Facebook 페이지 '국어자몽'](http://www.facebook.com/damonj11) : <http://www.facebook.com/damonj11> 〉

책 소개 일문일답



Q. 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A.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수능 국어 고득점에 최적화된 관점을 확립시켜 주는 책’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

Q. 관점 확립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A.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 국어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야되는 공부는 안하고, 성적 향상에 도움이 안되는 무언가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 책의 목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방향을 잘못 잡아 헤매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제대로된 공부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즉, 시험을 이해하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Q.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제대로된 국어 공부란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하자면?

A. (웃음) 그걸 짧게 답을 수 없어서 책으로 만든 것인데,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만 소개하자면 ‘수능 국어에 적합한 독해 연습’이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대부분 독해력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 정말이다. 다만 시험장에서 엉뚱한 짓을 할 뿐이다. 아무 수험생이나 붙잡고 최근에 읽은 책이나, 신문 기사 등을 소개해달라고 해보면 아마 다들 어렵지 않게 해낼 것이다. 그 긴 내용을 요약해서 기억하고 남들에게 설명까지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 페이지짜리 지문을 못읽어낸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일상 속 직관이 시험에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연습하면 수능 고득점은 문제가 없다는 게 필자의 기본 관점이다. 이에 대해 이런저런 반박이 꼬리를 물텐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에 자세히 실려있다.

Q. 그런데 수능 국어 전체를 다뤘다고 하기엔 책이 다소 짧은 건 아닌지?

A. 물론 부족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꼭 다뤄야 할 내용은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한다. 책이 길어봐야 완독률만 떨어지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독자들이 느낄 부담을 덜고자 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뺐다.

그리고 이 책은 문제집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집이 아닌 만큼 실려있는 문제의 양이 적기 때문에 책이 두껍지 않다. 따라서 이 책을 보는 것 만으로는 절대 공부가 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공부 방식을 기출 문제를 통해 스스로 적용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Q. 그렇다면 생략된 내용이 많다는 말인데, 많은 내용이 생략된 이유가 있다면?

A. 간단히 말하자면 필요 없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너무 기본적인거나 쉬운 내용들은 지면 낭비 일 뿐이고, 몰라도 되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 역시 지면 낭비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책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면 독자 입장에서는 학습 부담만 커질 뿐이다. 어차피 실질적인 공부는 책을 읽은 후 스스로 하는 연습이다.

Q.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생략됐는지 예를 들자면?

A. 예를 들어 역설법, 반어법 등을 몰라서 서점에 책사러 오는 수험생은 없을 것이다. 물론 수험서라면 이런 내용도 꼼꼼하게 다 실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많은 교재들이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미 양질의 교재가 서점에 깔려있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이 책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

이처럼 쉬워서 뺀 내용들도 있고, 정말로 수능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뺀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이 책은 고전문학을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고전문학 기출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을 살펴보면 ‘고전 문학이라서’ 어려웠던 문제는 없다. 즉, 읽기 어렵거나 의미를 모르겠는 글자 등, 흔히들 떠올리는 고전 문학의 특성 때문에 어려웠던 적이 없다. 모든 오답은 그냥 정답에 이르는 논리를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들이다. 따라서 자신이 고전 문학 부분을 틀렸다면 고전 문학이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문학, 크게는 수능 국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Q. 그렇다면 이 책에서는 독해 연습 이외에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A. 물론 독해만이 전부는 아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내용 암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암기해야 할 내용도 이 책에 실려있다. 하지만 단순한 항목 나열 식의 구성은 아니고, 수험생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문법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암기를 해야 수능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 범위를 제시하고, 그 범위 안의 내용만 다뤘다. 문학 용어의 경우는 수험생들이 자주 헛갈려하거나 판단 기준을 잘 모르고 있는 개념들 위주로 구성했다.

Q. 수험생들의 고민을 중심으로 다뤘다는 부분이 흥미로운데, 하나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A. 그럼 의인법과 활유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평가원에서는 활유법을 알아야 하는 문제를 개정 7차 교육과정 이후 단 한 문제도 낸 적이 없다. 그 이전의 시험에 대한 분석은 수능 대비에 있어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살펴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정 7차 이전의 시험에서도 활유법은 출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의인법과 활유법의 구분은 실제로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

문이다. 두 개념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를 내면 반드시 출제 오류 시비에 휘말리게 되어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능에는 활유법이 출제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정확한 이유는 출제진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활유법은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니 활유법은 잊어버리고, 그냥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모두 의인법이라고 간주하면 된다. 어차피 수능에서는 누가봐도 의인법인 표현들만 구분할 줄 알면 된다. 따라서 수능을 위해서 활유법과 의인법을 구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시험지 연구를 한번도 안 해본 가짜다.

Q. 더 묻고 싶은 말은 많지만 끝으로 하나만 질문하자면, 이 책 제목처럼 정말 한 문제도 안 틀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A. 가능하지만 어렵다. (웃음) 책 제목은 약간의 과장이 있다. 책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은 필자가 이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 6월, 9월, 수능에서 한 문제도 안 틀렸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수험생이 노력만으로 무조건 1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00점을 위해서는 시험에 적합한 공부와 더불어 약간의 소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등급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1장. 수능 국어 문제 풀이 원칙

- 1. 눈보다는 머리를 굴려라 009p
- 2. 정답은 중심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 010p
- 3. 오답에 관심을 갖지 말자 010p
- 4.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하지 말자 011p
- 5. 선택지 구성 원리를 활용하자 011p
- 6.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자 015p

2장. 비문학 독서 문제 풀이 논리

- 1. 글의 중심 내용을 통한 추론 017p
- 2. 글 전체를 몰라도 되는 논리 관계 대응 026p

3장. 독해 직관

- 1. 일상속 직관과 글의 중심 내용 032p
- 2. 독해 직관: 예측과 요약 034p
- 3. 전체 글 독해 및 문제 풀이 예시 043p

4장. 비문학 독서 실전 연습

- 1. 2017학년도 9월 35-39 062p
- 2. 2016학년도 수능B형 29-30 072p

5장. 문학 문제 풀이 논리

- 1. 시에서 주관 배제하기 080p
- 2. 소설에서 주관 배제하기 084p

6장. 시 독해 개념

- 1. 시 읽기 1 : 문장 단위로 읽기 088p
- 2. 시 읽기 2 : 형식 문단 만들기 090p
- 3. 문제 풀이 예시 092p

7장. 시 실전 연습

1. 2017학년도 6월 34-38 097p
2. 2016학년도 수능B형 43-45 108p

8장. 소설 독해 개념

1. 소설 읽기1 : 형식 문단 만들기 115p
2. 소설 읽기2 : 6하 원칙으로 요약하기 120p
3. 문제 풀이 예시 121p

9장. 소설 실전 연습

1. 2017학년도 6월 39-42 126p
2. 2017학년도 9월 40-45 137p

10장. 수능에 필요한 문학 개념어 151p

11장. 수능에 필요한 문법 개념

1. 단어의 분류 개괄 166p
2. 음운, 문장·절·구 173p
3. 자주 헷갈리는 개념 174p

12장. 문법 문제 풀이 논리 및 실전 연습

1. 2017학년도 6월 15번 176p
2. 2017학년도 6월 13번 179p
3. 2017학년도 9월 13번 182p

13장. 2017학년도 수능 정답률 50%미만 고난도 문제 연습

1. 정답률 28%: 2017학년도 수능 13번 185p
2. 정답률 29%: 2017학년도 수능 39번 188p
3. 정답률 39%: 2017학년도 수능 35번 192p

10장



수능에 필요한 문학 개념어

이번 장에서는 수능에서 쓰이는 문학 용어 중 일부를 살펴볼 것이다. 문학 용어 중 2010학년도부터 지금(2017학년도)까지 출제된 시험에서 몰라도 지장이 없었던 용어는 설명에서 제외했다. 단, 출제 비중과 무관하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개념, 헷갈려 하는 개념은 설명에 넣었다. 그 외 아주 기본적인 필수적인 용어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했다. 역설법과 반어법, 감정 이입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용어는 필요한 경우 온라인 사전을 참고하자.

이번 장은 문학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마련된 장이므로 모든 설명에 대해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으면 된다. 실려 있는 용어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가나다순)

1. 감각적 심상
2. 걱정적 어조
3. 공감각적 심상
4. 극적 긴장감
5. 근경원경
6. 대구법
7. 도치된 문장
8. 사건의 요약적 제시
9. 사건전개
10. 상응시키다
11. 설의적 표현

12. 시상 전개
13. 애상적 어조
14. 어조
15. 역전적 시간 구성
16. 연쇄
17. 운문체
18. 은유법
19. 음보율
20. 의인법
21. 입체감 부여
22. 전지적 시점
23. 점층적 표현
24. 주제의식
25. 직유법
26. 향토적 정서

1. 감각적 심상

심상이란 간단히 말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한다. 즉, 글을 읽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 항상 글의 내용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므로 심상이 없는 작품은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때, 감각적 심상이란 그 장면들 중에서 감각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감각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의 다섯 가지 감각을 말한다. 그런데 장면을 떠올릴 때는 대부분 이 다섯가지 감각 중 하나 이상이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감각적 심상이 드러나지 않는 작품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2011학년도 6월 19~22]

(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시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

1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④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시는 얼핏 보면 감각적 심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방금 살펴봤듯이 감각적 심상이 없을 수는 없다. 위의 시에서는 바다를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2. 걱정적 어조

흥분한 말투라고 생각하면 된다. 감정이 격하게 드러나는 말투로서,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는 경우에도 걱정적 어조일 수 있다. 그런데 2010학년도부터 2017학년도에 이르기까지 ‘걱정적 어조’가 들어간 선택지는 단 한 차례 등장한다. 그 한번은 2015학년도 9월 A형 43번 문항인데, 해당 선택지가 정답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평가원에서 ‘걱정적 어조’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걱정적’이라는 표현의 주관성 때문일 것이다. 즉, 어느 정도의 표현을 걱정적이라고 말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용어를 시험에 출제하기가 다소 힘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걱정적 어조’라는 개념을 몰라도 무방하다.

3.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감각적심상을 말한다. 감각의 전이란 어떤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푸른 종소리’라는 표현은 시각이 청각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에서 나타나는 심상을 공감각적심상이라고 한다.

4. 극적 긴장감

쉽게 말해 긴장감이 느껴진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2013학년도 6월 38~40]

(전략)

기자 2 현지 주민들이 기자 숙소로 옥수수과 감자들을 삶아 갖고 와서 김창호 씨를 꼭 구해 달라고 호소할 땐 눈물이 핑 돌더군요.

홍 기자 이런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뜻으로도 꼭 살아 나와야 겠습니다. (감격해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젖어 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존엄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 말씀드렸습니다. (쪽지 보며) 이 방송은 여성의 미를 창조하는 몽셀 느그르 화장품 제공합니다.

(중략)

소 장 나 소장이에요. 지금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의 건강을 염려하여 비서관님을 보내셨습니다. 받아 보시오.

비서관 (전화 바꾼다) 김창호 씨, 나 신난다 비서관입니다.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가 어서 구출되어 나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꼭 구출될 겁니다.

(후략)

- 윤대성, 『출세기』 -

3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상황에 맞지 않는 대사와 작위적인 이름으로 극적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있다. (적절한 설명)

위의 『출세기』는 매몰 사고로 고립된 김창호 씨를 구출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하지만 위의 빨간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작품 내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상황을 보도하는 흥 기자의 대사에 서는 마지막 광고 부분이 보도의 긴장감을 떨어뜨린다. 또 김창호 씨에게 자신을 ‘신난다’라고 소개하는 비서관의 대사도 긴장감을 떨어뜨린다. 고립된 사람을 구출하는 과정이라면 긴박하고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긴장감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러한 장치들이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5. 근경원경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듯한 장면을 근경, 반대로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듯한 장면을 원경이라 한다.

[2015학년도 수능 A형 31~33]

(가)

해사살 피여

이윽한* 후,

머흠 머흠

골을 옮기는 구름.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후략)

- 정지용, 『조찬』 -

*이윽한: 시간이 지난.

*길경: 도라지

3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④ 제2연에서 제3연으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적절한 설명)

위의 시를 보면 2연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구름에 있고, 3연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도라지 꽃봉오리에 있다. 구름은 멀리 있고 도라지 꽃봉오리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각각을 원경, 근경이라 할 수 있다.

6. 대구적표현(대구법)

같은 구조의 문장을 나란히 배치하는 것을 대구적표현이라고 한다. 문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잡지 못해 실전에서 헛갈리는 것이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대구인 경우에만 대구라고 말하기 때문에 애매한 것을 물어볼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래의 예는 전부 수능에서 대구법이라고 본 부분이다.

[2014학년도 9월 B형 38~40]

(나)

(전략)

- ㉠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 신경림, 『농무』 -

[2016학년도 수능 A형 37~39]

(전략)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후략)

- 작자 미상, 『토끼전』 -

7. 도치된문장

‘주어-서술어’ 순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문장 순서를 지키지 않은 문장이다. 판단할 때는 주어와 서술어등의 필수 성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편하다. 물론 도치도 누가 봐도 명확히 도치인 경우에만 출제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나올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래 빨간 색으로 표시된 문장이 도치의 예시이다.

[2012학년도 9월 7번 문제의 정답.]

- ① 노란 벼 이삭과 함께 미소 짓는 코스모스

· 나도 몰래 끌렸네 정겨운 그의 마음에

8. 사건의 요약적 제시(압축적 제시)

이는 말 그대로 사건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것인데, 요약적제시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시간의 압축', 다른 하나는 등장인물이 아닌 '서술자에 의한 서술'이다. 시간의 압축이란 말 그대로 긴 시간의 일을 짧게 줄여 말하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2016학년도 6월 B형 34~36]

(전략)

㉠ 하라는 공부는 작파하고, 북을 메고 떠돌아다니며 아내와 자식을 모른 채한 민익태, 한때는 아편쟁이로 세상을 구른 민익태, 그러면서도 북을 놓지 않은 그와 아들의 단절은,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후략)

3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인물과의 갈등을 짐작하게 한다. (적절한 설명)

또한 위와 같이 이러한 제시가 서술자에 의해 이루어질 때에만 요약적 제시라는 표현을 쓴다. 요약적 제시라는 말은 서술 방식의 일부를 뜻하기 때문이다. 소설에서는 종종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이전의 사건을 요약해서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는 인물의 대사일 뿐 소설의 서술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보고 '소설이 요약적 제시의 방법으로 쓰였다'고 해석는 안된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2015학년도 수능 B형 35~37]

(전략)

그 고을의 이방 원통을 불러서 그 연고를 물으니 원통이 고하기를,

“상서께서 명을 내리시어 속향을 잡아다가 죽이라 하시고로 원님이 상서 명을 거역하지 못하여 어젯밤에 속향을 잡아다 죽이려고 큰 매로 치라 하되 집장 사령이 매를 들지 못하여 죽이지 못하였사 오나 원님이 오늘 죽이려 하옵고 큰 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나이다.”

(후략)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에서는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이전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적절한 설명)

위의 예는 인물의 발화를 통해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만약 위의 선택지를 '㉣ ㉢로 보아 이 소설은 요약적 제시의 방법으로 서술되었다.'라고 하면 틀린 선택지가 된다. 이 개념을 혼동하지 말자.

지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중간부분 줄거리], [앞부분 줄거리]등도 요약적 제시라고 하지 않는다. 이는 지면의 낭비를 막고 독해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일 뿐 소설의 서술 방식이 아니다.

9. 사건전개

그냥 사건의 흐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10. 상응시키다

서로 어울리게 한다는 뜻이다. 수능 문학에서는 두 대상이 서로 비슷한 경우 상응이라고 받아들여
면 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시의 앞과 뒤가 비슷한 수미상응(수미상관)을 들 수 있다.

[2015학년도 9월 B형 31~33]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적절한 설명, 정답)

11. 설의적 표현(설의법)

질문의 형식을 빌린 표현 방법이다. 다만, 진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며, 평서
문으로 바뀌어도 뜻이 달라지지 않는다.

[2015학년도 수능 B형 43~45]

(가)

(전략)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후략)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적절한 설명)

12. 시상전개

시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했다.”=“-의 방식으로 시를 썼다.”로 이해하면 된다. 소설에서 이야기의 진행을 사건 전개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다.

13. 애상적어조

슬픈 말투. 아래는 애상적 어조로 쓰인 출제 작품의 예이다.

[2014학년도 6월 A형 31~33]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읍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라
오오 불설워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흠이나 남아 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옮겨가며 슬피 읍니다.

- 김소월, 『접동새』 -

31. 밑줄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애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적절한 설명)

14. 어조

말투.

15. 역전적 시간 구성

시간의 흐름이 순차적이지 않은 경우 역전적시간구성이라 한다. 즉, ‘과거-현재-미래’의 순서를 지키지 않는 모든 형태의 시간구성을 역전적시간구성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시간 순서를 거꾸로 구성하는 경우, 미래, 현재, 과거를 시간 순서를 지키지 않고 이리저리 오가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한다. 대표적인 출제 작품으로는 2014학년도 9월 A형 [34~37], 전광용, 『꺼삐딴리』가 있다. 이 개념은 지문의 일부만으로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췌하여 신지 않았다. 개념을 제대로 모를 경우 이 지문을 꼭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16. 연쇄

말이 사슬처럼 이어지는 표현법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2016학년도 6월 B형 31~33]

(가)

(전략)

무쇠로 성(城)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집 안에란……

(후략)

- 작자미상 -

33.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에서는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등에서 구절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적절한 설명)

17. 운문체

시처럼 썼다.

18. 은유법

은근히 비유하는 방법이다. 즉, 비유의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유법이다. 예를 들어, ‘인생은 커피다.’라고 하면 은유법을 사용한 표현이 된다. 비유의 말이 사용되는 직유법과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다.

그런데 2010~2017학년도에 출제된 평가원 모의고사 및 수능에서는 은유라는 말이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

19. 음보율

시의 한 행 안에서 반복되는 끊어 읽는 단위가 일정하게 반복되면 리듬감을 만드는데, 이를 음보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3음보율이라고 하면 한 행을 세 번으로 끊어 읽는 방식이 여러 행에 걸쳐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4음보율은 네 부분으로 끊어 읽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음보율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정형적 운율'이라고 한다. 아래는 4음보율을 보여주는 출제 작품이다. (‘/’표시는 끊어 읽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실제 문제에는 없는 표시이다.)

[2010학년도 수능 32~37]

(다)

(전략)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후략)

20.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표현법이다. ‘나무가 팔을 벌리고 서있다.’와 같은 표현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표현법을 굳이 분류하자면, 의인법은 감정이 없는 대상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활유법의 일종이다. 하지만 의인법과 활유법은 구분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여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처럼 의인법과 활유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활유법에 대해 묻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으로 이해하면 된다. 활유법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할 필요 없다.

[2015학년도 수능 B형 31~34]

(나)

(전략)

[B] 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위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扶桑)*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쪽 바다를 접했으며, 남으로는 소주와 항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옹기종기 널려 있는 섬들이 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 작은 것은 달걀 같아 놀랍고 괴이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부상:해가 뜨는 동쪽 바다.

- 최익현, 『유한라산기』 -

33. <보기>는 (가) 작품의 다른 부분이다. <보기>와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생략)

④ [B]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보기>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적절한 설명, 정답)

: [B]부분의 ‘굽어보다’, ‘돌아보다’, ‘끌어당기다’ 등의 표현이 의인법이다.

21. 입체감 부여

이 용어는 시험에서 꽤 빈번하게 등장하는 편이고, 많은 수험생들이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다지 중요한 개념은 아니다. 우선 2010학년도부터 2017학년도에 이르기까지 ‘입체감 부여’가 등장한 선택지들을 모두 살펴보자.

[2016학년도 9월 B형 39번 문제]

⑤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

[2015학년도 9월 B형 38번 문제]

②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

[2015학년도 6월 B형 43번 문제]

④ 제4수와 제5수에서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입체감을 부각하며 시상을 심화한다. (적절한 설명)

[2014학년도 6월 B형 41번 문제]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

[2014학년도 6월 A형 34번 문제]

⑤ 서술자는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시켜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

[2013학년도 수능 17번 문제]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

[2011학년도 수능 15번 문제]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

[2010학년도 수능 38번 문제]

②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

이렇게 등장 빈도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입체감 부여라는 개념은 8년에 걸쳐 총 8차례 선택지에 등장하는데 단 한 번도 정답으로 채택된 적이 없다. 게다가 8번 중 7번은 글에 대한 적절한 설명조차 아니었다. 이는 아마도 ‘입체적 서술’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정답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개념은 중요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등장 빈도 자체는 높은 편이므로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자.

[2015학년도 6월 B형 43번 문제]

- ④ 제4수와 제5수에서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입체감을 부각하며
시상을 심화한다. (적절한 설명)

이처럼 여러 장면을 배치하는 서술은 ‘한 장면만 배치할 때에 비해’ 입체감이 있다. 즉, 서술의 입체감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서술’과 비교해야 한다. 위에 나열된 선택지 중 몇 개를 통해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2014학년도 6월 B형 41번 문제]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

위 선택지는 비록 실제 문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었지만 선택지의 앞뒤만 따져보면 충분히 타당성 있는 선택지이다. 하나의 사건만 서술할 때보다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함께 서술할 때 이야기가 입체적이기 때문이다.

[2015학년도 9월 B형 38번 문제]

- ②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

같은 논리로 위의 선택지도 선택지의 내용 자체는 충분히 타당성을 갖는다. 꿈이나 현실 한 쪽만을 서술할 때보다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서술할 때 사건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입체적이라는 말은 단면적이라는 말과 반대지점에 있는 말이므로 단면적 구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사건, 상황, 장면 등이 하나만 서술될 때는 단면적인 서술이고 두 개 이상의 사건, 상황, 장면 등이 서술될 때는 입체적 서술이라 할 수 있다. 설명한 3개의 선택지 이외의 나머지 선택지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

22. 전지적 시점

서술자가 전지적 위치에 있는 시점을 말한다. 쉬운 판단 기준은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듯이 서술하는지 보는 것이다. 그렇게 서술하는 부분을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된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소설 전체를 단일 시점으로 설명하는 것은 많은 경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시점에 대해 판단할 때는 항상 근거가 되는 부분이 글에 등장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그 부분을 근거로 서술상의 특징을 잡아내면 된다.

수능에서는 ‘전지적시점’만 용어를 직접 사용하여 출제하고, 1인칭 관찰자, 1인칭 주인공 등의 다른 시점들은 내용을 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시점에 관해서는 굳이 따로 개념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

[2015학년도 9월 B형 34~37]

3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②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의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수능에서는 전지적 시점 외의 나머지 시점은 ‘1인칭 관찰자’, ‘1인칭 주인공’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상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쓰고 있다. 이와 같은 출제 방식은 위의 문제에서만 특별히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출제 방식이다.

[2013학년도 6월 26~29]

2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③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2014학년도 6월 A형 34~37]

34.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설정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작중 상황과 사건을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다.

[2015학년도 9월 B형 39~41]

39.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② 이야기 내부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서술상의 특징은 그 용어들을 외우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전지적 시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만 그 뜻을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지금까지 전지적 시점이라는 용어가 직접 쓰인 경우를 살펴봤지만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된 부분조차도 선택지에서는 용어를 쓰지 않고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설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지를 글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념을 따로 암기하기보다는 글을 잘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3. 점층적 표현(점층법)

뜻이 점점 강해지는 표현법. 아래의 선택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장이 점층법이 사용된 문장이다.

[2013학년도 수능 10번 문제의 정답]

- ⑤ 기타를 연주하며 마음의 평안을 느껴 보세요. 음악과 사회봉사 두 가지의 기쁨을 주는 동아리는 ‘소리샘’뿐입니다. ‘소리샘’에서 나를 알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회와 소통해 보세요.

24. 주제의식

주제.

25. 직유법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방법이다. 비유의 말이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인생은 마치 커피와 같다.’라고 하면 직유법을 사용한 표현이 된다. 비유의 말이 사용되지 않는 은유법과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수능에서는 직유법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26. 향토적정서

수능에서는 ‘토속적=향토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토속어는 특정 지방에서 주로 쓰여, 그 지방 고유의 느낌을 들게 해주는 말이다. 그러한 어휘가 쓰인 표현에는 ‘토속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향토적 정서를 환기한다’ 등의 설명을 붙일 수 있다.

[2014학년도 6월 A형 31~33]

(전략)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읍니다.

(후략)

- 김소월, 『접동새』 -

31.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적절한 설명)

11장



수능에 필요한 문법 개념

수능에서는 ‘단어 수준’의 문법 개념을 잘 익혀야 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완벽하고 엄밀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들이 대부분 중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조차도 아주 기초적인 수준까지만 암기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은 알 필요가 없다.¹⁴ 7차 교육과정 시행 이후 출제된 문법 문제들을 살펴보면, 단어 수준의 개념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간단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주석이나 <보기>와 같은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즉,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의 용어들은 의미와 쓰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문제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암기한 내용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수능 국어는 논리력, 사고력 등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즉,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다. 따라서 내용을 암기하는 것 만으로는 문법 문제를 풀 수 없다. 모든 문법 문제에 무리 없이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리 관계를 따지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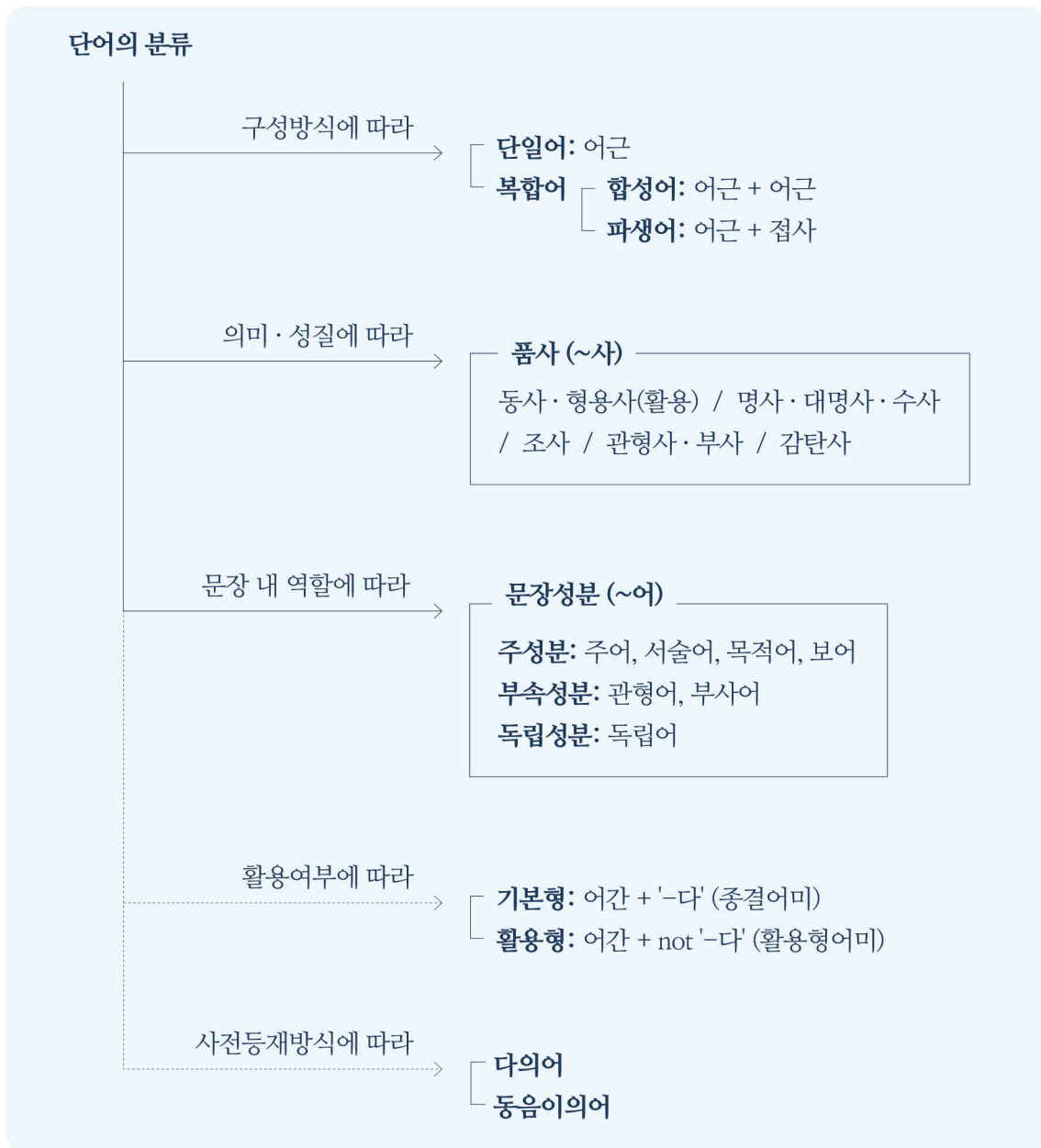
어차피 내용을 외워야 한다면 결국 암기 문제가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조금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보자. 만약 여러분이 토익 시험을 볼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수 천 개가 넘는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한다. 하지만 영어 단어를 그렇게 외워야 한다고 해서 토익 시험을 영어 단어 시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수능 국어의 문법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에 필요한 문법 용어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용어를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모

14. 예를 들면 많은 학생들이 어근을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다. 수능에서는 이정도면 충분하지만 실제로 어떤 단어에서 어근을 설정하는 일은 그렇게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어근의 설정은 비교언어학적 연구를 통해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인터넷에서 ‘어근’이라고 검색하면 이에 대한 다양한 학술자료를 접할 수 있다. 궁금한 독자들은 직접 찾아보는 것을 권한다.

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능 국어 문법을 공부한다면, 비교적 적은 시간으로도 충분한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다.

1. 단어의 분류 개괄

〈그림1〉 단어의분류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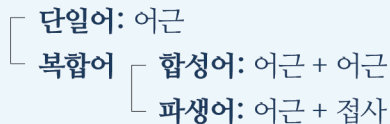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문법 개념이 머릿속에 파편적으로 존재한다. 각각의 용어들이 체계 없이 ‘어디서 들어본’ 내용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동 되는 개념이 여러 가지이고, 중요한 판단의 순간이 왔을 때 알고 있는(것 같은) 내용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그림1〉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개념들이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다.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이와 똑같은 형태로 개념을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만의 특별한 체계가 없다면 이 방식을 추천한다.

단어는 크게 5가지 방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구성 방식, 의미와 성질, 문장 내 역할, 활용 여부, 사전 등재 방식의 5가지가 그 분류 기준이다. 우선, 단어를 구성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두 번째 기준인 의미와 성질에 따라 단어를 구분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국어의 품사는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명사, 대명사, 수사, 감탄사로 총 9개이다. 세 번째 기준인 문장 내 역할에 따라 단어를 구분한 것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의 총 7가지가 있다. 이상의 3가지 기준은 모든 단어에 적용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이다.

이와 달리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준은 일부 단어에만 적용되는 분류 기준이다. 네 번째 기준은 활용 여부인데, 활용을 하지 않은 단어를 단어의 기본형, 활용한 단어를 단어의 활용형이라고 한다. 이 기준으로는 동사와 형용사에 해당하는 단어만 분류할 수 있다. 활용은 동사와 형용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기준은 사전 등재 방식으로, 이에 따라 단어를 나누면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로 나눌 수 있다. 이는 하나의 표기 방식으로 두 개 이상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에만 적용되는 분류 기준이다. 예를 들어, ‘눈’이라는 단어는 ‘눈’이라는 하나의 표기로 ‘신체 기관의 일부인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두 개의 뜻을 가질 수 있다.

〈그림2〉 구성방식에 따른 단어의 분류



모든 단어는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분류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근과 접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어근과 접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어근: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 중에서 핵심적인 뜻을 지닌 부분. 예를 들어, ‘자다’라는 단어에서는 ‘자-’를 어근이라고 할 수 있다. ‘해’, ‘달’, ‘별’처럼 단어 자체가 어근인 경우도 있다.

접사: 어근에 붙어서 뜻을 첨가하는 부분. 접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크게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눌 수 있다.

- ┌ **접두사:** 단어의 앞에 붙는 접사. ‘맹정신’의 ‘맹-’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 **접미사:** 단어의 뒤에 붙는 접사. ‘선생님’의 ‘-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접미사의

종류는 다양한데, 수능을 위해 암기해둬야 할 접미사로는 피동접사와 사동접사 두 개를 들 수 있다. 이때, 피동접사와 사동접사의 종류를 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 접사 '-이-'와 같이 피동접사로도 쓰이고 사동접사로도 쓰이는 접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류를 외우기보다는 실제 단어에서 특정 접사가 어떤 의미를 첨가하는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피동접사:** 단어의 뒤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첨가하는 접사. '당하는' 의미가 첨가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예를 들어, '잡다'에 접사 '-히-'를 결합하면 '잡히다'가 되고 이때 '잡히다'는 피동의 의미를 갖는 피동사가 된다.
- **사동접사:** 단어의 뒤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첨가하는 접사. '시키는' 의미가 첨가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예를 들어, '입다'에 접사 '-히-'를 결합하면 '입히다'가 되고 이때 '입히다'는 사동의 의미를 갖는 사동사가 된다.

어근과 접사에 대해 이해했다면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단일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해', '달', '자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합성어: 두 개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오가다(오다+가다)', '문고리(문+고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파생어: 어근에 접사가 붙어 형성된 단어. '선생님(선생+님)', '잡히다(잡다+-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짚고 넘어가기 〉

• '자다'를 파생어로 볼 것인가?

'자다'는 어근인 '자-'와 어미인 '-다'의 결합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어근+어미'의 꼴이다. 국어의 많은 동사가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근에 어떤 것이 결합된 형태를 복합어라고 공부한다. 이 때문에 '어근+어미'의 꼴도 단일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국어에서 '어근+어미'로 구성된 단어는 단일어로 취급한다. 따라서 '자다'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그림3〉 의미와 성질에 따른 단어의 분류 : 품사

품사 (~사)

동사 · 형용사(활용) / 명사 · 대명사 · 수사 / 조사 / 관형사 · 부사 / 감탄사

모든 단어는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의미와 성질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어를 분류해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국어의 품사에는 총 9개가 있다. 먼저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 알아보자.

동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 ‘먹다’, ‘오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동사의 종류는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어 그 가짓수가 20가지도 넘는다. 하지만 수능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이므로 이 두 가지 개념만 암기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 ┌ **자동사:**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가 필요없는 동사이다. 예를 들어 ‘오다’의 경우 ‘눈이 오다’와 같이 목적어가 없어도 의미가 완전히 전달된다.
- └ **타동사:**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이다. 예를 들어 ‘먹다’는 ‘내가 밥을 먹다’와 같이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의미가 완전히 전달된다.

형용사: 사물의 성질, 상태 등을 표현하는 품사. ‘행복하다’, ‘건강하다’, ‘길다’, ‘아름답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길모양이 동사와 유사하고 동사와 형용사 모두 활용이 가능한 용언이기 때문에 품사를 구분하는 것이 헛갈릴 수 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방금 예로 들었던 4개의 단어들과 같이 명백하게 성질이나 상태 등을 표현하는 것만 형용사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¹⁵

동사와 형용사를 먼저 설명한 이유는 이 둘이 ‘활용’가능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두 개의 품사를 묶어 ‘용언’이라고 한다. 활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해 알아보자.

명사: 사물의 이름, 명칭을 나타내는 품사.

- ┌ **의존 명사:** 혼자서는 쓰일 수 없는 명사를 말한다. ‘만큼’,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 **자립 명사:** 혼자 쓰일 수 있는 명사를 말한다. 의존 명사가 아닌 모든 명사는 자립 명사이다.

대명사: 사물 뿐 아니라 상황이나 문장 등 다양한 것들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품사.

수사: 수를 나타내는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설명한 이유는 이 세 개의 품사에 조사가 결합하여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여러 문장 성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개의 품사를 묶어 ‘체언’이라고 한다. 하지만 체언에 대해서는 수능에서 자세히 취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용어의 뜻 정도만 간단히 알고 있으면 된다. 다음으로 조사에 대해 알아보자.

조사: ‘은,는,이,가,을,를...’ 등과 같이 단어에 붙어서 단어의 뜻을 첨가해주거나 문장 내에서 단어의 역할을 지정해주는 품사. 조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수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조사를 꼽자면 격조사, 접속조사를 들 수 있다.

- ┌ **격조사:** 단어에 붙어 해당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타내는 조사. 예를 들어, 주격조사는 해당 단어가 문장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격조사의 종류로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부사격조사 등이 있다.

15. 예를 들어 ‘있다’, ‘아니다’와 같은 단어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한 형용사를 동사의 일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러차례 말했듯이 이와 같은 수준의 논의까지는 몰라도 된다.

- ↳ **접속조사:** 접속의 기능을 가진 조사. 접속 조사로 이어진 말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와’, ‘-과’ 등이 대표적인 접속 조사에 속한다.

조사의 개념은 이정도만 알면 수능에서 모든 문제를 무리 없이 풀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품사는 관형사, 부사, 감탄사 세 가지이다. 이 세 개의 품사는 자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어떤 단어들을 관형사라고 하는지, 어떤 단어들을 부사라고 하는지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관형사: ‘모든, 이·그·저, 헌, 새···’ 등을 관형사의 예로 들 수 있다. 체언을 수식 하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관형사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장에서 항상 관형어로만 쓰인다.

부사: ‘가끔, 매우, 설마, 빨리, 확실히’ 등을 부사의 예로 들 수 있다. 단어 뿐 아니라 문장 등을 모두 수식할 수 있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감탄사: 감탄을 나타내는 말. ‘아’, ‘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림4〉 문장 내 역할에 따른 단어의 분류 : 문장성분

문장성분 (~어)

주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속성분: 관형어, 부사어

독립성분: 독립어

단어를 문장 내 역할에 따라 분류한 것을 문장성분이라 한다. 어떤 문장에 쓰인 모든 단어는 위의 그림과 같이 7개의 문장성분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주성분〉 문장의 뼈대가 되는 성분

주어: 문장에서 동작, 상태 등의 주체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

서술어: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 상태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뜻이 완전히 전달되기 위해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

예를 들어, ‘먹다’가 서술어로 쓰였다면 이 서술어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왜냐하면 ‘먹다’ 이외에 주어와 목적어 두 개의 문장 성분이 더 있어야 의미를 완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 ‘먹다’ → ‘내가(주어) 꿀을(목적어) 먹다.’

목적어: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보어: ‘되다’, ‘아니다’가 취하는 주어 이외의 문장 성분.

ex. ‘내 마음이 꽃이(보어) 되다.’, ‘고양이는 사람이(보어) 아니다.’

국어에서 보어는 ‘되다’, ‘아니다’ 두 용언만 취하는 문장 성분이다. 나머지 모든 용언은 보어를 취할 수 없다.

〈부속성분〉 문장 성분의 의미를 꾸며주는 성분

관형어: 문장에서 체언 혹은 체언형의 의미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 관형어는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 체언+'-의': '그는 사람의(관형어) 탈을 쓴 악마다.'
- 체언+체언: '고양이(관형어) 탈이 제일 예쁘다.'
- 용언의 어간+'-ㄴ': '너는 아름다운(관형어) 고양이 같다.'
- 관형사가 관형어: '범인은 그(관형어) 놈이다.'

부사어: 문장에서 주로 용언으로 이루어진 문장 성분의 의미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 주로 서술어를 꾸미게 된다. 부사어는 서술어 뿐 아니라 용언으로 이루어진 주어, 관형어, 부사어도 꾸며줄 수 있고, 용언이 아닌 관형사 자체로 이루어진 관형어도 꾸밀 수 있다. 또한 문장 전체의 의미를 꾸며주기도 한다.

용언으로 이루어진 문장 성분을 꾸미는 경우

- 서술어를 꾸미는 경우: '그는 빠르게(부사어) 먹을 수 있다(서술어).'
- 부사어를 꾸미는 경우: '그는 매우(부사어) 빠르게(부사어) 먹을 수 있다.'
- 관형어를 꾸미는 경우: '그는 매우(부사어) 아름다운(관형어) 고양이다.'
- 주어를 꾸미는 경우: '맛있게(부사어) 음식을 먹는 것(주어)이 행복이다'

용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말을 꾸미는 경우

- 관형사를 꾸미는 경우: '너무(부사어) 새(관형사) 것이라 쓰기가 아깝다.'
-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경우: '설마(부사어) 풀이 쓴 맛이 나겠어?'

〈독립성분〉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문장 성분

독립어: 독립어에는 '아', '오' 등의 감탄사 혹은 '예', '아니오'와 같은 말들이 속한다. 자세히 몰라도 상관없다.

지금까지는 모든 단어에 적용될 수 있는 분류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일부 단어에만 적용할 수 있는 분류 방식에 대해 공부해보자.

〈그림5〉 활용 여부에 따른 단어의 분류

- 기본형: 어간 + '-다' (종결어미)
- 활용형: 어간 + not '-다' (활용형어미)

용언에 속하는 단어는 기본형과 활용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활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어간과 어미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어간: 용언을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 용언을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는 부분.

‘떡다’라는 용언을 예로 들어보자. ‘떡다’는 ‘떡고’, ‘떡어’ 등으로 활용된다. 이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떡-’이 어간이고, ‘-다’, ‘-고’, ‘-어’ 등은 어미이다. 즉, 활용이란 용언의 어미를 다른 어미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어미가 교체된다는 말은 곧 어미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어미의 종류는 무척 다양한데, 수능에서 알아둬야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XX형 어미: XX형 어미가 붙으면 그 단어는 XX의 역할 혹은 XX의 형태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명사형 어미’는 어간에 붙어 단어를 명사 형태로 만들어준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떡기’라는 단어의 구성을 생각해보자. ‘떡기’는 ‘떡다’의 어간인 ‘떡-’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이외에도 ‘종결형 어미’, ‘연결 어미’, ‘관형사형 어미’, ‘칭유형 어미’ 등 여러 어미가 있다. 시험지에 이런 종류의 용어가 등장 하면 이와 같이 이해하면 된다. 어미의 종류와 그 쓰임을 모두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XX형 어미 중에서 품사의 기능을 바꾸는 어미는 ‘XX형 전성 어미’라고 쓰기도 한다. 여기서 ‘전성’은 성질을 바꿔준다는 말이다.¹⁶ 즉, ‘명사형 전성 어미’라고 하면 원래 명사가 아닌 단어의 품사를 명사로 바꿔준다는 뜻이다. 시험에서 ‘전성 어미’라는 용어가 등장하면 이와 같이 이해하면 된다.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 어말어미는 말 그대로 단어의 맨 끝에 붙는 어미이고,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보다 앞에 붙는 어미이다. ‘하시다’를 예로 들어보자. ‘하시다’에서 어간은 ‘하-’, 선어말어미는 ‘-시-’, 어말어미는 ‘-다’이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단어의 기본형과 활용형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형: 어간+종결어미’-다’ 형태인 용언.

활용형: 어간+종결어미’-다’ 이외의 어미가 결합된 형태인 용언.

예를 들어 ‘떡다’의 경우, 기본형은 ‘떡다’, 활용형은 ‘떡고’, ‘떡자’, ‘떡어’ 등이다.

<그림6> 사전 등재 방식에 따른 단어의 분류

다의어
동음이의어

하나의 표기 방식으로 두 개 이상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은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단어는 사전에 등재되는 방식이 다르다. 다의어는 그냥 ‘뜻이 둘 이상인 단어’로 한 개의

16 앞서 단어를 의미와 성질에 따라 구분해놓은 것을 ‘품사’라고 공부했다. 이와 연결지어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단어의 품사를 바꾼다는 말은 곧 단어의 성질을 바꾼다는 말이다.

단어이다. 따라서 하나의 표제어 아래 다양한 뜻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동음이의어는 ‘말소리만 같은 서로 다른 단어들’을 말한다. 따라서 동음이의어로 묶이는 단어들은 사전에 각각 별도로 등재된다.

다의어: 다의어의 대표적인 예로 ‘눈’을 들 수 있다. ‘눈’은 신체기관의 일부,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 등 두 개 이상의 뜻을 갖는다.

동음이의어: 신체기관을 뜻하는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서로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즉, 뜻이 완전히 다른데 소리만 같은 단어이다.

지금까지 단어 수준 및 그에서 파생되는 개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다음으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수능에서 별도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던 다른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자.

2. 음운, 문장·절·구

〈그림7〉 음운 현상 : 말소리 현상

〈자음의 소리 구분〉

예사소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등을 발음할 때 나는 소리

거센소리: ㅋ ㆁ ㅌ ㅍ... 등을 발음할 때 나는 소리

된소리: ㆁ ㅃ ㅆ... 등을 발음할 때 나는 소리

〈음절〉: 발음의 개수를 세는 단위. 예를 들어 ‘거울’은 2음절의 단어이다.

〈그림8〉 문장과 절과 구

문장: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최소단위를 문장이라 한다. 아무런 말이 붙지 않고 ‘문장’이라고 하면 필수 성분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의 문장을 말한다. 문장의 필수 성분은 다시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과 연결된다. 즉, 특정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의 개수를 모두 채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다. 만약 필수 성분중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이는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불완전한 문장의 예: 나는 선물을 줬다.

완전한 문장의 예: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줬다.

절: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으나 독립적인 문장이 아닌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것. 절은 문장 성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가 문장 성분의 종류와 비슷하다. 수능에서 알아둬야 할 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명사절: 명사 형태로 끝을 맺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는 절.

ex. 나는 세상에서 꿀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음(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알고 있다.

관형절: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는 절.

ex. 나는 내 친구가 좋아하는(관형절) 꿀을 먹어보고 싶다.

부사절: 문장에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 절.

ex. 나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부사절) 노래를 불렀다.

이외에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서술절은 서술어 역할을 하는 절이다. 인용절은 주어와 서술어가 완전히 갖춰진 말을 그대로 인용한 절을 말한다. 인용절은 일반적으로 ‘~라고 말했다’ 등의 표현과 함께 쓰이며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괜찮다.

구: 주어, 서술어를 완전히 갖추진 못했으나 단어보다는 큰 단위. 수능에서 구는 잘 몰라도 괜찮다.

다음으로는 수험생들이 자주 혼동하는 개념들을 공부해보자.

3. 자주 헷갈리는 개념

〈그림9〉 어근vs어간, 어미vs접사

	형태 중심 분석(활용 중심 분석)		의미 중심 분석	
	어간	어미	어근	접사
먹다	먹	다	먹	없음
먹히다	먹히	다	먹	히(피동접사)
꿀	꿀은 체언이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용언에 적용하는 어간, 어미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	없음

어근과 어간, 어미와 접사는 많은 수험생들이 혼동하는 개념이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의 구성을 분석해보면 어근이 곧 어간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미와 접사는 모두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는 공통점도 있다. 게다가 이 용어들이 머릿속에 파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헷갈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위의 그림처럼 관련있는 개념끼리 묶어서 공부해야만 그러한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어근은 접사와 묶이고, 어간은 어미와 묶인다. 단어의 구성을 어근과 접사로 분석하는 것은 구성 성분을 의미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다. 어근은 단어의 중심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며, 접사는 의미를 첨가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피동 접사는 단어의 어근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첨가해준다.

이와 달리 단어를 어간과 어미로 분석하는 것은 단어의 구성 성분을 형태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다. 어간은 단어의 몸통으로서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어미는 단어의 꼬리로서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어근은 접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간은 어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개념들이 헷갈렸던 독자가 있다면 이와 같이 묶어서 기억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림10〉 형용사, 관형사, 관형어

	형용사	관형사	관형어
단어의 구분	품사의 일종	품사의 일종	문장성분의 일종
문장 내 기능	용언이기 때문에 문장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함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로만 쓰임	체언/체언형을 수식하는 문장성분
활용 여부	용언이므로 활용가능	형태가 변하지 않는 품사로 활용 불가능	문장성분이므로 활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음

문장성분인 관형어가 의미상으로는 형용사와 유사하고, 관형사와 관형어는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형용사, 관형사, 관형어 이 세 개념을 헷갈려하는 수험생들이 꽤 있다. 혹시 이를 헷갈리고 있는 독자가 있다면 위의 표를 참고해서 공부하자.

여기까지가 수능 시험을 위해 익혀야 할 문법 개념의 전부이다. 많지 않은 양이므로 꼼꼼하게 암기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 개념들은 수능 시험 직전에 외우기보다는 지금 이 책을 읽는 순간 외우기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외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면 수능까지 남은 기간 동안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수능에서도 암기한 개념을 까먹지 않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념을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하면 이 책이 몇 권이 되어도 모자랄 정도로 양이 많고, 또 수능에서는 그 정도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 실린 문법 개념은 필요에 의해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둔다. 이보다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면 다른 강의나 온라인 백과사전 등을 참고하자. 하지만 ‘수능을 위해서라면’ 여기 실린 내용을 착실하게 암기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